

역태도 역할놀이가 태도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효과

강재연 · 이수원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역태도 역할놀이가 태도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가정은 역태도 역할놀이가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며, 이렇게 생성된 인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에 누적됨으로써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역할놀이를 통하여 개인의 태도구조가 이원화되면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하지 않고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인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을 두개의 실험조건인 인지생성과 인지차단조건에 할당된 후 역태도 역할처치를 가하였다.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역태도 역할을 맡게 한 후 태도대상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인지차단조건에서는 그 기회를 차단하였다. 그 결과 역태도 역할놀이의 효과가 인지생성조건에서만 나타났다.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예언대로 개인의 태도가 역태도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또한 태도의 구조도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바뀌면서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이 평가적 의미차원에서 서술적 의미차원으로 변화되었다.

태도변화에서 역할놀이(role-playing)의 효과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일찍이 Lewin(1947)은 집단의 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변화된 태도가 그렇지 않은 태도보다 일관성이 있고 변화에 저항한다는 것을 밝혔다. 태도변화에서 역할놀이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다룬 Janis와 King(1954)은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게는 어떤 태도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평소주장과 대립되는 주장을 즉흥적으로 피력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그가 말하는 것을 단순히 경청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신의 평소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을 즉흥적으로 피력하도록 한 집단이 단순히 주장을 경청하도록 한 집단에서보다 태도변화가 더 크게 나타났다. 역태도 역할에 직접 참여할 때에 단순히 역태도 정보에 수동적으로 노출될 때보다 태도변화가 커진다는 이같은 결

과는 많은 후속연구에서도 얻어졌다(Culbertson, 1957; Elms, 1966; Greenwald & Albert, 1968).

그렇다면 역할놀이가 태도변화에서 왜 이와 같이 효과적인가? 이에 대해서 Janis와 King(1954)은 사람들이 역할놀이를 통해서 편파적 탐사(biased scanning)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역태도(counter-attitude) 역할놀이는 주어진 역할에서 나오는 주장들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하도록 동기화시킨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들 주장에만 쉽게 주의함으로써 이들 주장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을 높여주는 반면에 이를 반박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주의의 폭'을 역태도 주장에만 제한시킴으로써 태도가 그쪽으로 바뀐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의 이와 같은 주장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결과가 Greenwald(1969)에 의해서 얻어졌다. 이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게는 피험자들의 태도와 반대되는 역태도 역할을 맡겼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피험자들의 태도와 일치되는 친태도 역할을 맡겼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토론에 대비해서 주제와 관련된 여러가지 주장들의 타당성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친태도 역할을 맡은 집단에서는 자신의 태도와 일치되는 친태도 주장들에 대해서만 타당한 것으로 평정하였으나 자신의 태도와 불일치되는 역태도 주장들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평정하였다. 반면에 역태도 역할을 맡은 집단에서는 친태도 주장들과 역태도 주장들 모두를 타당한 것으로 평정하였다. 이 결과는 친태도 역할을 맡긴 집단의 경우에는 편파적 탐사설명이 가능하지만 역태도 역할을 맡긴 집단의 경우에는 편파적 탐사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친태도 주장들과 역태도 주장들을 모두 타당한 것으로 평정하는 것은 어느 한쪽 주장들만을 편파적으로 탐사하는 것이 아니다. 두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Greenwald는 역태도 역할놀이가 편파적 탐사를 일으키기 보다는 비판파적 탐사(unbiased scanning)를 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역할놀이 효과에 대한 '편파적 탐사' 설명과 '비편파적 탐사' 설명간의 이와 같은 대립은 그 기저에 태도변화가 '교체적 과정(substitutive process)'을 통해서 일어나는가 또는 '누적적 과정(cumulative process)'을 통해서 일어나는가에 대한 가정이 깔려있다. 편파적 탐사설명에는 태도변화가 교체적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에 비판파적 탐사설명에는 누적적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교체적 과정은 역할놀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새로운' 태도가 '기존의' 태도를 '억제한' 바탕 위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입장인 반면에 누적적 과정은 '새로운' 태도가 '기존의' 태도를 '포괄한' 바탕 위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편파적 탐사설명에는 앞에서 본 것처럼 역할놀이를 통해서 역태도 주장들이 특출(salient)하게 된다고 보

았다. 이 때 친태도 주장들은 억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파적 탐사 설명에서는 역태도 역할놀이가 이제까지 몰랐던 역태도 주장들을 알게 함으로써 기존에 갖고 있던 친태도 주장들에 이들 새롭게 획득된 역태도 주장들이 첨가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비판파적 탐사설명에서 개인들은 역태도 주장들은 물론 친태도 주장들까지 모두 타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보았다.

Greenwald(1969)가 역태도 역할놀이의 효과를 이렇게 역태도 주장들이 친태도 주장들에 누적되는 과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가 역할놀이를 통한 태도변화를 기본적으로 인지생성의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태도변화가 원천적으로 인지생성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였다. 역태도 역할놀이는 역태도 행동에 의해서 새로운 사고를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서 이제까지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인지가 생성되기 때문에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생성되는 새로운 인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들을 포기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지들에 새로운 인지들이 누적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태도주제에 대해서 비판파적 탐사를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았다.

역할놀이에 대한 편파적 탐사설명과 비판파적 탐사 설명의 차이는 한마디로 역할놀이가 태도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지를 생성시키는가 아닌가에 있다. 그리고 역태도에 대한 주장 또는 인지들이 친태도에 대한 주장 또는 인지들에 누적되는 것인가 또는 교체되는 것인가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설명들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역할놀이는 태도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새로운 인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들에 누적되어 태도대상을 이전보다 비판파적으로 보게 만드는가? 만일 그렇다면 역할놀이는 태도의 '방향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태도의 '구조에서의 변화'도 동반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역태도 주장들과 친태도 주장들을 함께 가지고 형성하는 태도는 한쪽 주장들만을 가지고 형성하는 태도와 그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태도개념에서는 태도가 태도주제에 대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를 양극으로 하는 단일차원상의 양극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두 태도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며, 어떤 태도대상에 대해 정적태도를 가질수록 부적태도는 갖지 않게 되는, 즉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수원(1995)은 태도의 구조가 반드시 이러한 양극구조를 갖는 것은 아니며, 이원구조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원구조는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서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주제에 대해서 정적신념(친태도 주장)과 부적신념(역태도 주장)을 함께 갖고 있을 때는 태도구조가 이원구조(duality structure)가 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어떤 한 태도주제에 대해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양극적으로 대립하려면 이 두 태도가 동일한 준거신념에 기초해서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이 두 태도가 서로 다른 준거신념에 기초해서 형성된다면 두 태도는 양극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이원적으로 양립된다는 것이다. 준거신념이 서로 다른 두 태도는 한 태도주제에 대해서 '시각'을 달리해서 볼 때 나타나는 두 모습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와 같은 두 모습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양립되는 것이다.

사실 '칭교도정신'과 '박애정신'의 두 준거가치를 함께 가지고 흑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한 개인 내에서 흑인에 대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는 Katz와 Hass(1988)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이들의 연구에서 보면 한 개인에서 흑인에 대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서로 다른 가치에 토대해서 형성됨이 나타났다. 정적태도는 '박애정신'과 상관이 나왔으며 '칭교도정신'과는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반면에 부적태도는 '칭교도정신'과만 상관이 언어졌으며 '박애정신'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미국인의 흑인에 대한 태도는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한 개인 내에서 공존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존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정적 및 부적태도가 서로 다른 가치에 입각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수원(1995)은 또한 이렇게 개인들의 태도구조가 양극구조인가 또는 이원구조인가에 따라서 태도대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차원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개인의 태도구조가 양극적일 때는 태도대상을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식하지만, 이원구조일 때에는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인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평가적 의미와 서술적 의미의 차이는 원래 언어학에서 감정적 내포(affective connotation)와 정보적 내포(informative connotation)로 표현되는 낱말의 의미의 이중성으로 부터 나온 것으로서, 어떤 낱말 예컨대, '암'이라는 말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질병을 지칭한다는 서술적 의미도 있지만 '나쁜 것'이라는 평가적 의미도 함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가치를 기술하는 낱말들도 이와 같은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예컨대, '기강'가치의 서술적 의미는 '기강'과 '인권'의 의미의 차이를 비교할 때 인권과 다른 내용을 지칭한다는 뜻으로서의 '기강'이 갖고 있는 의미이다.

한편 평가적 의미는 개별적인 가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또는 나쁜 것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의미는 '기강있다'와 '기강없다'의 두가치를 비교할 때 나타난다. 이 두 가치에서 지칭하는 가치의 내용은 같다. 다른 것은 전자는 '좋은 것'이며 후자는 '나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양극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가치의 평가적 의미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반면, 이원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태도대상을 지각한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양극구조에서는 사람들의 준거가치가 정적태도의 준거가치와 부적태도의 준거가치중에 한쪽 준거가치만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들의 태도대상을 지각하는 조망이 평가차원으로 구성된다. 예컨대,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태도의 준거가치는 '기강(기강있다-문란하다)'가치이며, 부적태도의 준거가치는 '인권(인도적이다-비인도적이다)'가치이다. 따라서 한쪽 준거가치에만 입각해서 볼 때에는 나쁘다-좋다 차원에서 태도대상을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기강이나 인권의 양쪽 준거가치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태도대상을 볼 때에는 기강있다-인도적이다 차원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서술적 의미차원에서 태도대상을 지각하게 된다. '기강'과 '인권'의 양쪽 준거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보게 되면 '사형폐지제도'는 '인권'은 신장하지만 '기강'은 문란시키는 것이며, '사형존속제도'는 '기강'은 확립하지만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 중 어느 것을 더 좋다 또는 나쁘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가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는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에 대한 찬반의사가 자신이 선호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준거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를 통하여 형성된 새로운 인지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인지에 누적됨으로써 태도 구조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려 하였다. 즉, 역할놀이를 통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인지는 개인 내 태도구조를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시키어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도 평가적 의미에서 서술적 의미로 탈바꿈시키는가를 보려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전문대에 재학중인 남녀학생 101명이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피험자들은 실험조건에 맞추어 56명만이 선별되었다. 선별 방법은 이해경과 이수원(1994)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전검사에서 준거가치다원성을 측정 한 후, 태도대상 '사형제도'에 대하여 '기강'과 '인권'의 두가치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는 다원가치피험자들은 실험에서 제외하고, '기강' 또는 '인권' 중 어느 한쪽의 가치에만 준거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단일가치피험자들만을 피험대상으로 선별하였다.

본 실험에서 단일가치 피험자들만을 실험대상으로 선별한 이유는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생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 선별된 피험자들은 인지생성조건과 인지차단조건을 두 조건으로 나누어 실험에 참

가하였다.

실험의 개관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처치와 실험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조작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사형제도'를 태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역태도 역할놀이의 효과를 실험조건별로 검증하기 위해 모든 피험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2주 후에 단일 가치집단의 피험자만을 뽑아 역태도 역할처치를 가하였다. 역할놀이처치가 끝난 후 이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한집단에게는 태도대상에 대한 인지생성을 허용하였으며, 다른 집단에게는 인지생성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집단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역할처치 사전검사 2주 후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피험자들이 사형제도 찬성자와 반대자로 나누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한 후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를 주어 역태도 역할처치를 가하였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각자에게 진취적이고도 개방적인 민주적 리더로서의 자질이 얼마나 잠재해 있는지, 민주적 리더의 자질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한 심리학 연구 논문을 보았는데, 대학생과 직장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에 따르면 민주적 리더의 자질을 많이 갖춘 사람일수록 직장인의 경우에 직장에서의 업무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많이 받고 대인관계에서의 적응력도 좋아 승진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능력이 급격히 향상되는 경향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으며, 취업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성공을 매우 정확하게 예언해주는 민주적 리더의 자질이란 바로 타인의 입장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나와 다른 입장, 나와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민주적 리더의 자질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연 얼마만큼의 민주적 리더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잠재력을 계발시켜 보자는

뜻에서 이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민주적 리더의 자질 정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역할 바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사형제도”에 대해 간단한 설문문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선 반대입장에 서야 하니까 우선 사형제도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가려보도록 하죠. 지난번 설문지에서 사형제도를 찬성했던 사람은 왼쪽에 앉도록 하고, 사형제도에 반대했던 사람은 오른쪽에 앉도록 합시다.

자리배치가 끝나면 여러분에게 각각 종이가 한장씩 배부될 것입니다. 종이에는 이번시간에 여러분이 해야 할 사항이 적혀있으니 지시문을 잘 읽고 행동해 주세요.

그리고 약 15분 후에는 여러분이 오늘 맡은 역할을 가지고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시 후, 역할집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상이한 유인물을 배부하였다.

사형제도 반대자집단:

당신은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형제도가 왜 존속해야 하는지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여기에 쓴 내용을 토대로 당신은 잠시후의 토론에서 의견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전개될 내용은 500자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사형제도의 존속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형제도 지지자입니다.

사형제도 찬성자집단:

당신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형제도가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후 가능한 한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의견을 제시하십시오. 여기에 쓴 내용을 토대로 당신은 잠시후의 토론에서 의견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도 공감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고, 전개될 내용은 500자 이상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지금부터 사형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는 사형제도의 폐지론자입니다.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두개의 조건으로 상이하게 조작되었다. 역할놀이의 효과가 인지생성기회의 제공

여부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조건을 인지생성과 인지차단의 두 조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실험처치를 가하였다.

인지생성조건 피험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아, 곧 있을 토론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하여 토론을 예견하게 하였다. 사형제도찬성자집단과 반대자집단별로 상이한 유인물을 배부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맞추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글을 쓰라고 지시하였다. 피험자들이 글을 다 쓰고 나면 곧바로 사후설문지를 배부하여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인지차단조건 피험자들에게 사형제도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옹호하는 역할을 맡아, 이후에 있을 토론에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토론을 예견하게 한 후, 곧바로 토론주제와는 상관없는 쌀 수입 개방에 관한 의견조사서를 배부하여 그에 대하여 답하게 하였다. 쌀 수입 개방에 관한 의견조사서가 다 작성되면 곧바로 사후설문지를 배부하여 사후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측정

태도대상인 ‘사형제도’에 대한 피험자들의 태도와 태도구조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정적/부적태도척도와 준거가치척도를 사전과 사후에 실시하였다.

정적/부적태도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내의 정적태도와 부적태도를 각기 따로 측정하기 위해 사형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정적태도척도(Positive Attitude Scale: PAS) 8문항과, 사형제도의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부적태도척도(Negative Attitude Scale: NAS) 8문항을 각각 제시하여, 이들 문항 각각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9점 척도 상에서(-4점: 매우 반대한다~+4점: 매우 찬성한다)평정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정적/부적태도척도 문항들은 구정숙(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준거가치척도 이 척도는 사형제도에 대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가 어떤 준거가치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수원과 박영석(1988)의 기법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이 척도는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의 특성으로 추출한 두 요인, 즉, '기강' 차원과 '인권' 차원에 따라 이들을 대표하는 신념들로 구성된 척도들을 가지고 의미미분척도 구성방식으로 제작되었다. '기강' 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는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기강있다 문란하다, 질서있다 질서없다, 안전하다 불안하다"의 네개 문항을 선정하였고, 인권차원에 해당하는 신념으로는 "자비롭다 잔인하다, 인도적이다 비인도적이다, 인정있다 몰인정하다, 너그럽다 너그럽지 않다"의 네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들 8개의 의미미분척도를 피험자들에게 제시하고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를 이들 척도 상에서 각각 평정시켰다. 평정은 9점척도 상에서 이루어졌다.

피험자들의 반응은 그림 1에서처럼 각 차원에서의 변별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y는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가 기강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x는 인권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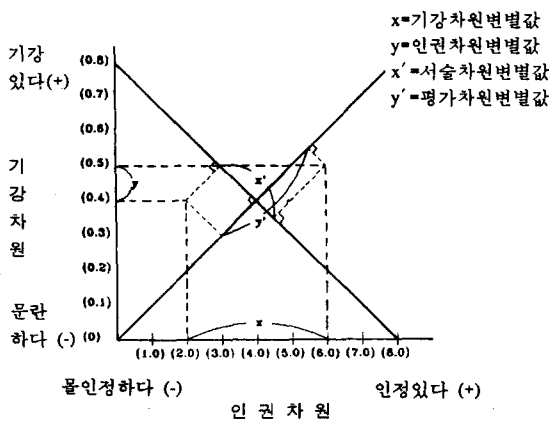


그림 1.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에 대한 준거가치차원

나타낸다. 그리고 y'는 그림에서 좌표점 0, 0에서 좌표점 8, 8을 잇는 차원에서 즉, '나쁘다 좋다'의 평가 차원에서 두 제도가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x'는 좌표점 0, 8과 좌표점 8, 0을 잇는 차원에서 즉, '기강있다-인도적이다'의 서술차원에서 두 제도가 변별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각 차원에서 사형폐지제도와 사형존속제도 간의 변별값의 계산은 이수원과 박영석 (1988)의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결 과

태도의 변화

역할놀이가 태도대상인 사형제도에 대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하여 역할 및 실험조건별 사전/사후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표 1에서, 정적태도는 그 값이 클수록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며, 부적태도는 그 값이 클수록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정도가 높은 것이다.

표 1에서 정적태도의 변화를 보면, 반대자 역할집단에서는 태도의 변화가 거의 없으나, 찬성자 역할집단에서는 정적태도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다. 한편 부적태도의 변화를 보면, 반대자 역할집단에서는 부적태도가 증가되는 추세가 있으나 찬성자 역할집단에서는 태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인지생성조건에서는 반대자 역할집단의 경우 정적태도는 변화하지 않고 부적태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찬성자 역할집단의 경우에는 부적태도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정적태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지차단조건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역할처치별 사형제도에 대한 정/부태도의 사전/사후 평균(SD)

역할집단	실험조건	정적태도		부적태도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반대자 역할	인지생성 (n=15)	6.82 (1.32)	6.80 (.99)	4.51 (1.26)	5.13 (1.01)
	인지차단 (n=15)	6.74 (1.30)	7.30 (1.33)	5.15 (1.49)	5.39 (1.19)
찬성자 역할	인지생성 (n=11)	4.80 (1.45)	6.26 (1.42)	6.77 (1.31)	6.65 (1.02)
	인지차단 (n=15)	4.86 (1.90)	5.45 (1.24)	6.73 (1.37)	6.48 (1.46)

정적태도에서 사전/사후태도간 변화량을 각 조건별로 t검정한 결과, 찬성자 역할집단의 인지생성조건에서만 검사시기에 따른 정적태도의 변화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조건에서는 검사시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찬성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0)=2.53, p<.05$, 인지차단조건- $t(1, 14)=1.45, ns.$, 반대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4)=.10, ns.$, 인지차단조건- $t(1, 14)=1.42, ns.$). 그런데 부정태도에서 사전/사후간의 태도의 변화량을 각 조건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모든 조건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반대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4)=1.56, ns.$, 인지차단조건- $t(1, 14)=.64, ns.$, 찬성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0)=.45, ns.$, 인지차단조건- $t(1, 14)=.78, ns.$).

태도의 구조 변화

평가/서술차원분석 피험자들이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를 기강가치와 인권가치 중 어느 가치에 입각해서 판단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기강차원변별값과 인권차원변별값을 산출하였다. 표 2에서, 기강차원변별값은 그 값이 클수록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를 기강차원에 입각해서 변별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권차원변별값은 그 값이 클수록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를 인권차원에 입각해서 변별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기강차원변별값의 사전/사후간의 변화를 보면, 반대자 역할집단보다 찬성자 역할집단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 역할집단×실험조건×검사시기의 변량분석 결과, 두 역할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1, 52)= 5.81, p<.05$), 이 역할집단간의 차이는 또한 실험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역할집단×실험조건×검사시기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는데($F(1, 52)= 6.96, p<.05$), 이 결과는 반대자 역할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찬성자 역할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찬성자 역할집단은 인지차단조건에서보다 인지생성조건에서 기강차원변별값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각 조건별로 기강차원변별값의 사전/사후 변화량을 t검정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뒷받침되었다(찬성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0)=3.01, p<.05$, 인지차단조건- $t(1, 14)=1.31, ns.$, 반대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4)=.42, ns.$, 인지차단조건- $t(1, 14)=1.82, ns.$).

한편 인권차원변별값의 변화를 보면, 찬성자 역할집단에서보다 반대자 역할집단에서 더 크게 증가하였다. 역할집단×실험조건×검사시기의 변량분석 결과, 두 역할집단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며($F(1, 52)= 6.51, p<.05$), 이 역할집단간의 차이는 또한 실험조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집단×실험조건×검사시기의 3원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왔는데($F(1, 52)= 10.17, p<.05$), 이 결과는 찬성자 역할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반대자 역할에서는 실험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자 역할집단은 인지차단조건에서보다 인지생성조건에서 인권차원변별값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각 조건별로 인권차원변별값의 사전/사후 변화량을 t검정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지지되었으며, 특히 반대자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인지를 차단한 조건에서는 오히려 인권차원변별값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대자역할: 인지생성조건- $t(1, 14)=3.28, p<.05$, 인지차단조건- $t(1, 14)=2.48, ns.$, 찬성자역할: 인지생성조건-

표 2. 역할처치별 기강/인권차원변별값 사전.사후 평균(SD)

역할집단	실험조건	기강차원변별값		인권차원변별값	
		사 전	사 후	사 전	사 후
반대자 역할	인지생성 (n=15)	4.07 (2.07)	3.88 (2.50)	.55 (2.05)	2.47 (2.26)
	인지차단 (n=15)	4.08 (2.12)	5.08 (2.66)	.18 (1.57)	-.85 (2.14)
찬성자 역할	인지생성 (n=11)	-1.21 (1.91)	1.96 (2.81)	5.39 (2.10)	4.46 (2.24)
	인지차단 (n=15)	.03 (2.57)	.88 (2.14)	4.47 (2.40)	3.75 (2.54)

표 3. 실험조건별 서술/평가차원변별값의 사전/사후 평균.(SD)

실험조건	서술차원변별값		평가차원변별값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인지생성 (n=26)	-1.09(1.10)	.14(1.10)	3.76(2.06)	1.86(1.50)
인지차단 (n=30)	-.97(1.14)	-.94(1.30)	3.47(2.02)	3.62(2.38)

($t(1, 10)=1.81, ns.$), 인지차단조건- $(t(1, 14)=1.67, ns.)$).

피험자들의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서 표 2에서 제시한 결과를 가지고 서술차원변별값과 평가차원변별값을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평가차원변별값은 그 값이 커질수록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를 평가적 의미에서 변별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며, 서술차원변별값은 그 값이 커질수록 두 제도를 가치의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변별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표 3에서,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서술차원변별값이 역할처치 후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인지차단조건에서는 서술차원변별값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조건별 서술차원변별값의 변화를 변량분석한 결과, 실험조건×검사시기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 54)= 9.93, p<.05$).

한편, 평가차원변별값의 변화양상은 이와 반대로 나타났다. 표 3에서,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역할처치 후에 평가차원변별값이 감소하였으나 인지차단조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조건별 평가차원변별값을 변량분석한 결과, 실험조건×검사시기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54)= 13.15, p<.001$).

양극/이원구조 분석 태도의 구조가 이원적인가 또는 양극적인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적/부적태도와 기강/인권가치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표 4에서는 사전검사서에서 실험조건별로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반적으로 두 실험조건 모두에서 태도와 가치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생성조건에서 정적태도는 기강가치와 정적 상관, 인권가치와 부

표 4. 정적/부적태도, 기강/인권가치의 상관(사전검사)

실험조건	정적태도	부적태도	기강가치	인권가치
인지생성(n=26)				
정적태도		-.5814**	.7336**	-.6641*
부적태도			-.6834*	.6761**
기강가치				-.7798**
인권가치				
인지차단(n=30)				
정적태도		-.4950*	.5944**	-.6252**
부적태도			-.3711	.5399*
기강가치				-.7986**
인권가치				

** $p < .001$ * $p < .01$

적 상관성이 높았으며, 부적태도는 이와 반대방향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간의 상관도 높았으며, 기강가치와 인권가치간의 상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인지차단집단의 사전검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사 결과를 가지고 상관관계를 산출하였을 때에는 그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정적태도가 기강가치와만 상관을 보이며 인권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적태도는 인권가치와는 상관이 나왔으나 기강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적태도와 부적태도간의 상관관계도 나오지 않았으며, 기강가치와 인권가치간의 상관관계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인지차단조건에서의 상관관계의 양상은 이와 같

표 5. 정적/부적태도, 기강/인권가치의 상관(사후검사)

실험조건	정적태도	부적태도	기강가치	인권가치
인지생성(n=26)				
정적태도		-.2118	.6310**	-.1212
부적태도			-.1460	.5739*
기강가치				-.1429
인권가치				
인지차단(n=30)				
정적태도		-.2313	.8380**	-.5628**
부적태도			-.4339*	.4725*
기강가치				-.7124**
인권가치				

** $p < .001$ * $p < .01$

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사전검사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인지생성조건에서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가 서로 다른 가치에 토대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적태도는 기강가치에 토대해서 결정되는 반면에 부정태도는 인권가치에 토대해서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인지생성조건에서는 정적태도와 부정태도의 준거가치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인지차단조건에서는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가 기강가치와 인권가치의 두 가치 모두와 상관을 보여, 정적태도와 부정태도의 준거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역할도 역할놀이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여 이것이 기존의 인지에 누적됨으로써 태도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역할도 역할놀이가 태도대상을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해주어 이전에는 양립시킬 수 없었던 서로 상반된 두 태도를 한 개인 내에 양립시킬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역할도 역할놀이는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함으로써 태도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놀이 처치 전에는 사형제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하나의 준거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즉, 찬성집단에서는 '기강가치'에 입각해서 태도를 형성하는 반면에, 반대집단에서는 '인권가치'에 입각해서 태도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역할놀이 처치 후에는 기강과 인권의 두개의 가치를 함께 가지고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생성조건에서 역할도 역할을 처치하였을 때, 기존의 준거가치 변별값은 변하지 않고 새로운 준거가치 변별값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에서 사형제도 반대자 역할을 주었을 때 기존의 준거가치인 '기강가치'의 변별값은 변화하지 않고 '인권가치'의 변별값만이 증가하였으며, 사형제도 찬성자 역할을 주었을 때는 '인권가치'의 변별값은 변하지 않고 '기강가치'의 변별값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인지차단조건에서는 이러한 준거가치 변별값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역태도 역할놀이에서 인지생성의 효과는 태도와 가치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역할 처치 전에는 태도와 가치의 관계에서 기강가치와 인권가치가 정적 및 부정태도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강가치는 정적태도와 정적 상관이나왔으며 부정태도와는 부정 상관이 나와 두 태도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인권가치에서도 방향만 다를 뿐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개인들은 양쪽 가치 중에서 한쪽의 가치에 준거해서 정적태도와 부정태도를 모두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기강가치에 준거하면 정적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부정태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며, 인권가치에 준거하면 이와 반대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가 상관이 높게 나온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역할처치 전에는 정적태도와 부정태도를 양극적 관계로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역할처치 후에는 기강가치는 정적태도와만 상관이 있었으며, 부정태도와는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인권가치는 부정태도와만 상관이 있었으며 정적태도와는 상관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정적태도는 기강가치에 준거해서 형성되며, 부정태도는 인권가치에 준거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적태도와 부정태도간의 상관이 유의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결과에서 뒷받침되고 있다.

둘째, 역할도 역할놀이는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함으로써 태도대상의 인식차원을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생성조건에서 역할도 역할놀이 후에 '사형존속제도'와 '사형폐지제도'가 좋다-나쁘다의 평가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이 두 제도가 '기강'과 '인권'의 두 가치를 축으로 하는 서술차원에서 변별되는 정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형제도를 서술적 의미에 입각해서 지각할 때와 평가적 의미에서 지각할 때의 차이는, 전자는 사형제도를 '기강있다' 또는 '인도적이

다'와 같이 가치속성에 따라 지각하는 반면에 후자는 '좋다' 또는 '나쁘다'와 같이 호오속성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전자는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기강을 세우는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후자는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것은 좋은 것(또는 나쁜 것)이며, 폐지하는 것은 나쁜 것(또는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개인의 태도가 기강과 인권 중 어떤 가치가 보다 중요한가 즉, '가치선호'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반면에 후자에서는 어떤 제도가 보다 좋은가 즉, '호오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앞서 보았듯이, 역태도 역할놀이는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시켜 태도구조를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변화시키며 또한 대상에 대한 인식차원도 평가차원에서 서술차원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나 인지 차단조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 동안 많은 태도변화연구에서 역할놀이의 효과도 대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가에 관심을 갖고 역할놀이의 정체를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Janis와 King(1954)은 역할놀이의 효과를 편파적 탐사(biased scanning)의 결과로 설명하였다. 역태도적 행동의 기회가 역태도 주장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들 주장들에 대해서 주의가 현저(salient)하게 되고, 이에 반해 친태도 주장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억제되기 때문에 태도가 변화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이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Janis와 King은 개인의 태도를 평가차원 상에서의 한 점으로 보고 태도변화를 평가차원 상에서 양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태도의 변화 즉, 새로운 태도의 획득은 기존의 태도를 버림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서로 대립되는 두 태도는 결코 한 개인 내에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리하여 역할놀이가 편향된 지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역할놀이가 이렇게 편향된 지각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할놀이를 통한 태도의 변화를 호오차원 상에서의

양적인 이동만을 가지고 지표화하지 않고 태도구조에서의 질적 변화를 분석하게 되면 역할놀이는 태도대상에 대한 인식차원을 탈바꿈시키는 기제가 되는 것이다.

사실 상담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역할놀이를 상대방 입장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를 통하여 공감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해하였다. 내담자의 갈등경험을 갈등상대의 입장에서 인식하게 함으로써 주어진 갈등대상에 내재하고 있는 갈등요소를 통찰하게 하는 두의자 역할놀이기법이나, 갈등장면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입장을 재연함으로써 주어진 갈등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빈의자 놀이기법 등은 모두 내담자들이 그들의 갈등에 적극적으로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그 갈등을 더욱 깊이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반대되는 양측의 접촉을 가능케 하고, 양측을 통합적으로 자각하게 만들어 준다(Bohart, 1977; Greenberg & Clarke, 1979; Coley, 1981). 상담에서 역할놀이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자기만의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함으로써 조망의 확대를 가져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상담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역할놀이에는 단순히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인지가지를 포괄하여 태도대상을 비편파적으로 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앞에서도 본 Greenwald(1969)의 연구는 상담에서 말하는 이러한 역할놀이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인지의 생성이 태도대상을 다각적으로 보게 만들으로써 대상을 비편파적으로 보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역할놀이의 기능 중 하나는 태도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지를 생성하여 기존의 주장에 새로운 주장을 누적시킴으로써 태도의 구조를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탈바꿈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실험 절차상 두가지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는 피험자 선별방법에 따른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기강가치와 인권가치를 모두 갖고 변별하는 다원가치 피험자들은 제외하고

참 고 문 헌

오로지 하나의 증거가치만을 갖고 있는 피험자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이미 두개의 증거가치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 역할놀이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데 이유가 있다. McGuire(1964)의 면역실험에서, 문화적 공리인 '이담기'에 대하여 한 집단에는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반박하게 한 반면, 다른 집단에는 긍정적인 정보를 주고 그 정보를 옹호하게 하였다. 며칠 후에 이들에게 이담기를 공격하는 강한 설득을 시도하였을 때 반박집단에서는 이담기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았으나 옹호집단에서는 이담기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다. McGuire는 반박집단에서 이담기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은 이유를 면역(innoculation)현상 때문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의 다원가치 피험자들은 이미 두개의 증거를 갖고 대상을 보기 때문에 McGuire 실험의 반박집단처럼 면역효과가 있어서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자연상태에서와 달리 인위적으로 조작된 이러한 피험자 선별 방법이 실험의 오염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

두번째 제한점은 앞서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인지차단조건에서 정/부의 태도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지차단조건에서 태도가 바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기존의 많은 태도변화연구들에서 인지반응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역태도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만으로도 태도가 변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이 결과를 일시적 이동(transient shift)현상으로 이해하였으나(Cialdini, Levy, Herman & Evenback, 1974) 본 실험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의 한가지는 이 조건에서 피험자들의 관심이 '쌀 수입 개방'이라는 차단조건에 집중됨으로써 맡은 역할이 덜 현저(salient)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인지차단집단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제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차후에는 이러한 제한점들을 보완하고, 역할놀이가 인지를 어떻게, 그리고 왜 생성하는지 보다 구체적인 인지생성의 조건에 대해 깊이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구정숙(1994). 정적태도와 부적태도의 독립성과 기능 차별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이수원·박영석(1988). 평가차원에서 기술차원으로: 태도의 변형생성과정, 사회심리학 연구, 4권 1호, 155-181.
- 이수원(1995). 양극구조에서 이원구조로: 개인내 태도 구조의 발달,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인쇄중.
- 이수원·이영훈(1989). 태도의 면역기제:양극성에서 이원성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8권 1호, 67-87.
- 이수원, 이해경(1994). 사회적 범주화, 가치선호 및 내 집단편애,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권 2호, 108-123.
- Bohart, A. C.(1977). Role playing and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1, 15-24.
- Cialdini, R. B., Levy, A., Herman, C. P., & Evenback, S.(1974). Attitudinal politics: The strategy of moder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 100-108.
- Coley, G. F.(1981).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Book/Corey Publishing Company.
- Culbertson, F. M.(1957). Modification of an emotionally held attitude through role playing.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 230-233.
- Elms, A.(1967). Role-playing, incentive, and dissonance, *Psychological Bulletin*, 68, 132-148.
- Greenberg, L. S., & Clarke, K. H.(1979).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he two-chair experiment and empathic reflections at a conflict marker,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6, 1, 1-8.
- Greenwald, A. G.(1989). Why attitudes are important: defining attitude and attitude theory 20 years

- later, In A. R. Pratkanis, S. J. Breckler, & A. G. Greenwald(Eds.), *Attitude structure and function*, Hillsdale, N. 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reenwald, A. G.(1969). The open-mindedness of the counterattitudinal role-play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375-388.
- Greenwald, A. G., & Albert, R. D.(1968). Acceptance and recall of improvised argumen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8, 31-34.
- Janis, I. L., & King, B.(1954). The influence of role-playing on opinion chan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9, 211-218.
- Katz, I., Wackenhut, J., & Hass, R. G.(1986). Racial ambivalence, and American value conflict: correlative and priming studies of dual cognitive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893-905.
- Lewin, K.(1948). *Resolving social conflict: selected papers on group dynamics*, New York:Harper.
- McGuire, W. J.(1964). Inducing resistance to persuasion: some contemporary approache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 191- 229.

Effects of Counter-attitudinal Role Playing on the Change of Attitude Structure

Jae-Yoen Kang and Soo-W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 hypothesis that people will integrate their counterattitudinal beliefs in terms of the descriptive values of an attitude object when they experience the arguments which are against their attitudinal evaluations. A pretest was performed to test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s capital punishment, rated on the evaluative dimensions (e.g., agreedisagree) or the descriptive dimensions (e.g., human right, social order). Participants were then forced to take a role of counterattitudinal role playing in which they were instructed to write their opinions supporting their counterattitude (the cognitive generation condition) or to write their opinions regarding about an issue irrelevant to the attitude object (the cognition blocking condition). After the role playing, a posttest was performed to test the final attitude toward capital punishment. The changed-magnitude between the two tests was measured on the evaluative and descriptive dimensions. As confirming the predictio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al analyses indicated that (1) in the cognition blocking condition, the positiv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social order, but negatively with the value of human right, and (2) in the cognitive generation condition, the positive attitud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social order, but not correlated with the value of human right. For the negative attitude, the same trends observed above were obtained. Obviously, after the role playing, participants combined opposing attitudinal beliefs on the evaluative dimension into an attitude by integrating them in terms of descriptive values.